**백제 유적지의 보고 – 부여**

글 작성. 규암우회도로 현장 최열 대리

해가 지날수록 더워지는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경상도 지역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왔었다고 하는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찬기운이 조금씩 돈다고는하나, 아직은 한낮의 무더위가 많은 이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진흥기업 가족분들 파이팅입니다.

이곳 규암우회도로 현장에 제가 발령을 받아 온지도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2012년 준공이 목표였던 현장이 두 번의 공기연장을 거쳐, 올해 말 드디어 11년 간의 대장정을 마루리 하는 공사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현재는 소수의 인원이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완공되는 그날까지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암우회도로 현장이 위치한 충남 부여군은 비록 면적 624km2, 군민 7만명 가량의 작은 도시이지만, 한반도의 역사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녔던 유서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백제 26대왕이셨던 성왕이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후 123년간 국력신장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쳐 고대문화를 꽃피우고 충효, 개척 정신을 뿌리내린 역사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1년간 제가 근무해 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이들이 타유적지들과는 다르게 이곳 부여의 유적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곳에 발령받기 전엔 여러분들하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현장이 있는 부여의 자랑이 될만한 특산물과 유적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젠 신토불이도 인터넷 장터에서 - 굿뜨래장터

굿뜨래장터는 실제 시장이 아닌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공,특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잡한 중간유통 없이 농가와 직접 연결, 생산지 가격 그대로 공급하는 신토불이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쌀/잡곡, 과일, 채소,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부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굿뜨래 멜론은 현장 직원들도 명절때마다 지인들에게 선물을 할 정도로 상품의 질이 좋고 유명합니다.

전통방식으로 뽑아내 더욱 쫄깃한 국수 - 은산국수

부여군 은산면, 이 조그만 시골마을에는 전통방식으로 국수를 만드는 집이 세군데나 있습니다. 은산국수, 은산대동국수, 은일국수 세집 다 6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곳에서는 아직도 두꺼운 벨트와 나무부픔으로 이루어진 옛날 국수기계를 갖고 국수를 뽑아내고, 안마당에 널어 놓아 건조를 시키며 나무칸막이에 넣고 면을 절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수는 소면이라기 보다는 굵기가 중면에 가까워 더욱더 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국수의 제조과정을 구경하고 먹어보면 옛날의 향수를 듬뿍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 백제의 궁남지

통일신라 궁궐건축을 대표하는 경주 안압지와 견줄 수 있는 백제의 인공연못이 바로 궁남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이며 3만여평이나 되던 광대한 연못은, 서동이라고 불리웠던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 셋째 딸 선화공주와의 사랑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져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7월이 되면 사람 키만한 연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7월 중순이면 아름다운 음악과 퍼레이드, 불꽃쇼를 즐길 수 있는 ‘부여 서동연꽃축제’도 지역도 높은 축제라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 -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어 가면서, 700년 역사의 운명을 다하는 마지막 격전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규모는 해발 100m, 길이 2.5Km 정도로 이곳은 모두 돌아보는 데는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서는 백제말의 충신인 성충, 흥수, 계백의 위패를 봉안한 삼충사, 부여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반월루, 백마강을 운치있게 볼 수 있는 사자루, 그리고 삼천궁녀로 너무나도 유명한 낙화암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여에는 학창시절 우리가 배운 역사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채웠던, 송국리유적, 정림사지석탑, 능산리고분군 등의 문화재와 유적지를 볼 수 있으며, 국립부여박물관, 만수산자연휴양림, 백제문화단지 등과 같은 백제와 관련된 많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제와 관련된 지역 민속행사 및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진흥 가족 여러분들도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